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스스로 다지는 맹세가 없으면
마부가 없는 말 같아 같 곳을 모른다.
소원을 가지고 행하면 목적을 이룬다.
「마하지관」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1월 28일) · 주간

제922호 2013년 1월 9일 수요일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사업 풍성

2월부터 다례재, 전시회 등



한 국 불 교의 최고 학 승 이 자 대 강 백 인 탄 허 스 님 <사진> 탄 신 100 주 년을 선 양 하 기 위 한 사 업 들 이 분 격 화 된 다. 탄 허 스 님 의 주 석 처 예 였 던 월 정 사 <주 지 정 념> 는 오 는 2 월 부 터 12 월 까 지 탄 허 스 님 의 사 상 을 기 리 기 위 한 학 습, 교 육, 문 화 사 업 등 을 다 체 투 게 진 행 한 다.

선 양 사 업 은 오 는 2 월 24 일 월 정 사 적 광 전 서 열 리 는 탄 신 100 주 년 다 려 재 를 시 작 으 로 대 장 정 에 들 어 간 다. 이 시 기 에 맞 추 탄 허 스 님 증 인 점 도 유 목 점 도 발 간 된 다. 4 월 26 일 에 는 한 국 불 교 학 회 와 공 동 으 로 한 국 불 교 역 사 문 화 기 념 관 국 제 회 의 장 서 탄 허 스 님 탄 신 100 주 년 기 념 학 습 심 포 지 엄 을 개 최 한 다. **기 획 연 재 14 번**

가 장 눈 깊 이 가 는 기 념 사 업 은 탄 허 스 님 탄 신 100 주 년 기 념 유 목 특 별 전 이 다. '한 국 근 대 고 승 유 목-오 대 산 월 정 사 한 암-탄 허 선 사' 를 주 제 로 열 리 는 특 별 전 은 4 월 15 일 부 터 6 월 16 일 까 지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에 서, 7 월 10 일 부 터 8 월 25 일 까 지 는 국 립 공 주 박 물 관 에 서, 11 월 11 일 까 지 는 12 월 15 일 까 지 는 국 립 춘 천 박 물 관 에 서, 9 월 7 일 부 터 11 월 3 일 까 지 는 월 정 사 성 보 박 물 관 에 서 순 회 형 식 으 로 진 행 될 예 정 이 다.

연 대 사 업 으 로 는 5 월 3 일 부 터 7 일 까 지 탄 허 스 님 을 초 청 해 월 정 사 문 수 선 원 에 서 '세 계 평 화 와 화 합 명 상 학 교' 를 진 행 하 며, 교 육 사 업 으 로 는 화 입 강 화 가 10 월 11 일 부 터 20 일 까 지 월 정 사 서 서 열 린 다. 문 화 사 업 도 다 체 투 게 진 행 된 다. 6 월 2 일 탄 허 스 님 열 반 30 주 기 에 맞 추 추 모 다 려 재 가 월 정 사 적 광 전 서 열 리 며, 선 서 함 양 전 국 휘 호 대 회 및 전 시 회 가 진 행 된 다. 세 계 평 화 와 나 눔 의 치 유 음 악 회 도 10 월 12 일 경 내 에 서 열 린 다.

탄 허 스 님 100 주 년 선 양 사 업 의 실 무 를 맡 고 있 는 윤 장 화 민 족 사 대 표 는 "이 번 100 주 년 선 양 사 업 을 통 해 스 님 의 사 상 을 후 대 에 전 할 수 있 는 계 기 를 만 들 것" 이 라 고 밝 혔 다. **신 종 일 기 자**

어려운 이웃·특기생 교육 지원

사찰·개인 등 50여 불교장학회

"어릴 적 가난했던 환경 탓에 진학을 포기했던 것이 아직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벗어났지만, 경제 양극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작은 사찰인 정릉 영각사 주지 흥진 스님이 동국대와 조계종에 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부하며 남긴 말이다. 출가 전 가난했던 환경에 귀동냥으로 글을 깨쳤던 이 스님은 1980년대부터 서울에서 작은 포교당을 하며 의정부 광동고 등에서 불교계 학생들의 학업을 후원했으며 1998년에는 운영하던 장학회를 확대, 자비장학회로 이름하고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회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학업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흥진 스님의 말이 귓가에 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원재단 20여년간 7억원

화엄장학회 매년 50명 도와

장학재단 활성화 위한

불자들이 인식 전환 필요

현재 불교계는 그 외형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신도간 소통 및 결속력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젊은 불자의 외면이다. 이웃종교인 기독교는 해방 이후 두가지 방향에서 매진해 신자들 사이로 파고들 수 있었다. 고령층에는 의료사업이며 젊은층에는 교육·장학사업이 그 방향이었다.

최용준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기독교의 수많은 미션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장학재단에서 후원 받은 인재들이 사회 지도자급으로 활동하며 다시 젊은 후배들을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에 들어 사회지도층 불자 비율이 신도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게 된 이유는 단적으로 이같은 인재 양성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직업군이 날로 다양화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들이 나오지만 현재 모든 면에서 미흡하다. 동국대, 금강대, 위덕대 등 3개 종합대학과 20

여 개 남짓의 중고등학교 만이 불교계 교육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학사업도 5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단위사찰과 개인 원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불교계 교육과 장학사업이 확대 되려면 무엇보다도 불자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불교의 미래가 젊은 불자 양성에 달려있으며 장학사업은 그 핵심이다.

광덕 스님으로부터 어려울 때 도움받고 불자 학생들을 배출하겠다는 원력 하에 수십년간 학생들을 지도한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는 "장학사업이 확대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젊은 동량을 키워내겠다는 불자들의 원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덕형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1월 3일 대구 동화사에서 계사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진제 스님은 중도들이 화합하고 정진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조계종

“화합·정진해 佛法을 만방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신년하례법회

"사부대중은 화합하고 정진해, 부처님 심인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3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계사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한해 동안 정진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하례는 종정 진제 스님의 현량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헌사, 불법승 삼보에 각 삼배를 드리는 통알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교역적

에 종사하는 스님들은 공심의 자세로 행과 위가 반듯이 하고, 모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몸소 나누고 실천하는 자비행을 보여줘야 한다"며 "계사년 새해에는 우리 사부대중이 화합하고 정진해서, 부처님의 심인법이 사해오호에 널리 유포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럽에 이어 미국인들이 생

선법의 세계화가 도래했다"며 "간화선을 통해 세계인들이 행복의 길을 갈수 있도록 대중들은 정진하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신년인사를 통해 "종정 스님의 가르침을 성심으로 받들어 중도와 화합하고 부처님의 심인법이 널리 퍼지도록 정진하겠다"며 "중도와 불자는 물론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지혜로 자비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종일 기자**

2013 현대불교 새 연재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기2557(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새 연재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2면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해수 관음도량, 구산선문, 삼국유사 속 그 절 이색 템플스테이 등 테마를 통해 사찰의 정취와 주변 볼거리를 생생히 전한다.

불국도 경주 남산을 오르다

본지와 신라문화원은 공동 사업으로 '경주 남산 불적 답사'를 진행한다. 매월 1회 씩 총 12회에 걸친 답사를 통해 신라인들의 탐파신앙부터 불상 조성, 설화 등을 면면히 소개한다.

108선원 기행

의왕 정계사가 진행하는 108선원순례를 동행하며 한국불교 선 수행 현장의 곳곳을 소개한다.

14면 불교와 미학

서울대 미학과 강사이자 조계종 교수 아사리 명법 스님은 불교와 미학의 관계를 조명해 불교가 가진 미학적 가치를 전한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증언 - 방산굴의 무영수

유불선을 회통한 화엄학의 대가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출간을 앞두고 있는 증언집 <방산굴의 무영수>를 미리 맛본다. 지인들이 증언하는 탄허 스님의 삶과 수행을 따라가 본다.

15면 수불 스님의 전신법요 선해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전신법요> 선해가 연재된다. <전신법요>는 배후 거사와 황백 선사의 문답기록으로 선문의 귀한 자료이다. 선수행자들은 이 책을 통해 중도 정견을 확립했다.

18면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사회

우명주 박사는 불기축천민중신으로 인도 초대법무부장관을 지낸 암베드카르가 인도에서 사라진 불교를 어떻게 부흥시켜 '신불교'로 자리잡게 했는지 살펴본다.

21면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 잡기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이 사찰건축의 구성적 용어를 바로잡아주며 독자들에게 불교미술의 지평을 넓혀준다.

24면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찾다

1921년 개원한 선학원은 근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 성지이다. 93주년을 맞아 선학원의 역사를 되찾고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27면 마음산업- '신행·포교 지도' 바꾼다

현대불교신문은 신년특집기획 '마음산업 & 불교'를 주제로 국내·외 마음산업을 점검했다. 그 기획으로 '마음·명상' 코너에 격주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마음수행 현장을 소개한다.

28면 불전 속 신이한 이야기

부처님말씀에 가려 드러나지 않은 비유나 전생담 등 신비한 고사들을 찾아 소개한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김진선 前 지사 선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사진)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에 임명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월 4일 취임준비위원장과 9개 분과 23명의 인수위 명단을 모두 발표했다.

평소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관동대 행정학 명예박사 강원에서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



고 청와대 지방행정특별보좌관, 중국인민대학교 객좌교수, 제34대 강원도지사, 동국대 겸임 교수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즐거운 병영 생활 마음수련 지침서!

어떻게 2년을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
나를 억압하는 시간이 될지,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 될지 그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 인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청춘
-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장병
- 군 생활 2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장병
- 장병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군법당에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을 보냅니다.
군법당은 모두 143개 입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1법당 300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고명석 글 | 176쪽 | 9,000원 | 사륙판(125×187mm)

민중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라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s.org | 이메일: minjoksasbook@naver.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세상 끝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스님의 편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온전한 삶의 지혜가 답답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기막힌 아름다운 아침의 꽃이라도 헤가지면 시드나니, 명리 사람들이여, 당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말라.

The Hundred Verses of Advice

파담빠 상계 · 델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256쪽 | 13,000원 | 사륙판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이제부터 삶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